

國立公園內的 天然記念物 管理

鄭 在 鏞

(文公部 文化財管理局 企劃官)

1. 自然과 文化

自然과 文化를 서로 상치되는 概念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文化를 잘 分析해 보면 自然은 文化의 어머니임을 알 수 있다.

文化란 역사적 時代性과 地域的 風土性 및 創造의 主体가 되는 人爲性으로 구성되어 있다. 文化는 歷史的 經驗을 아버지로 하고 자연적 風土를 어머니로 하여 탄생된 것이다.

그러기에 文化는 自然과 하나의 몸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든다면 韓國의 木造建築은 우리 국토에서 生産되는 木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저 아름다운 고려청자는 韓國에서 나는 고려토가 없고는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民族性이라는 것도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의 자연 風土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수려한 강산과 豊富한 資源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의 성품은 어질고 순박하다. 그러나 황폐한 땅과 삭막한 環境 속에 사는 사람의 성품은 순박하지를 못하다. 간단한 몇가지 예를 보더라도 自然은 文化를 創造하는 터전이요 사람의 성품을 만드는 모태이다. 그러기에 自然을 떠나서는 文化의 創造란 있을 수가 없다.

이러한 文化의 모태가 되는 自然은 固有性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우리 民族의 固有文化를 保存하고 자랑하듯이 우리의 自然에도 그러한 固

有性을 保存하고 가꾸는 努力이 必要하다.

人類가 살아 가려면 自然을 利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自然을 利用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自然을 죽여서 利用하는 것과 둘째는, 自然을 살려서 利用하는 方法이다. 그런데 自然을 죽여서 利用하는 方法은 경비도 적게 들고 利用하기도 쉽다. 그러나 自然을 살려서 利用하는 方法은 經費도 많이 들고 사람의 努力과 정성도 많이 든다. 이런 결과로 하여 때때로 사람들은 自然을 죽여서 利用하는 方法에 익숙하다.

이때까지 우리가 開發이라는 말을 많이 써왔다. 그런데 自然을 開發한다고 하면 自然이 破壞된다는 同意語처럼 느껴지게 된것은 自然을 죽여서 利用하는 方法을 많이 써 왔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文化의 創造에 있어 그 어머니가 되는 自然에 대하여 開發이라는 용어와 保存이란 용어가 서로 상충되는 뜻이 아니라 同意語가 되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2. 天然記念物과 國立公園

1984年 5月 3日까지 指定된 天然記念物은 總 253點에 이른다.

植物의 天然記念物은 169點인데 神木이나 堂山木, 亭子木 등 樹齡이 수 백년된 老巨樹가 116點에 이른다. 이들 나무는 느티나무, 팽나무, 소

나무, 은행나무, 왕버들, 회화나무, 향나무, 주엽나무, 참나무, 음나무 등속이다.

林叢이나 自然林은 21점이 지정되어 있는데 安眠島의 모감주나무 群落, 梵魚寺의 등나무 群生地, 小白山의 朱木群落, 珍島 義信面의 常綠樹林, 울릉도 솔송나무, 섬잣나무, 너도밤나무 群落, 外煙島와 珠島의 常綠樹林, 原城의 城隍林, 城邑의 느티나무와 팽나무, 魚付林으로 目島와 자막섬의 常綠樹林, 防風林으로 彌助里의 常綠樹林, 무안 淸川里의 줄나무群, 咸平 大洞面의 팽나무, 느티나무, 개서어나무의 줄나무群, 休養林으로 咸陽 上林, 自然學術林으로 高敞 三仁里의 동백나무숲, 백연사의 동백나무숲, 高興 金塔寺와 海南 蓮洞里의 비자나무숲 등이 있다.

植物의 自生地로 지정된 것이 18점이 있는데 北限自生地는 薪島의 과초일엽, 舊左面의 문주란, 大靑島의 동백나무, 金溝의 송악, 내장산의 굴거리나무, 함평의 붉가시나무, 佛甲寺의 참식나무, 부안 도청리의 호랑가시나무, 부안 格浦里의 후박나무, 부안 中溪里의 광광나무, 西歸浦의 담팔수나무, 白羊寺의 비자나무는 北限 自生地이다.

一般 自生地로는 達城과 令泉里 및 英陽의 側栢, 通九味, 道順里 待風坎의 향나무, 통영 비진도의 팔손이, 남해의 산딱나무, 한라산의 한란, 대둔산과 한라산의 왕벚꽃나무 등이다.

特産植物과 稀貴한 植物로는 槐山과 楸店里 栗池里의 미선나무자생지와 울릉도의 섬개야광나무 섬명강나무, 섬백리향 울릉국화 등이 있고 보은 속리산의 망개나무 등이 있다. 이들 稀貴 植物은 固有한 韓國의 自然에 대한 特色을 보여주는 중요한 天然記念物이다.

動物은 59점이 天然記念物로 지정되어 있다. 哺乳類로는 산양과 사향노루 등이 있으며 鳥類로는 따오기, 두루미, 흑두루미, 저어새, 재두루미, 크낙새, 황새, 느시, 흑고니, 고니, 흑비둘기, 노랑부리저어새, 큰고니, 먹황새, 팔색조, 까막딱다구리, 독수리, 참수리, 흰꼬리수리, 검

독수리가 있고 昆蟲으로 장수하늘소 등이 있다.

棲息地로는 광능의 크낙새 서식지, 울릉도의 흑비둘기 서식지, 정암사와 봉화의 열목어 서식지, 한강의 황쏘가리, 금강의 어름치, 서식지가 지정되어 있다.

渡來地로서는 낙동강 下流의 철새도래지, 철원 天通里 철새도래지, 진도의 白鳥도래지, 거제의 아비 도래지, 울산의 쇠고래 도래지, 제주의 무태장어 도래지 등이 있다. 번식지로서는 三千浦 鶴섬, 여주 신접리, 海南 방축리, 務安 龍月里, 통영 道善里, 횡성 鴨谷里 등의 백로 및 외가리 번식지와, 巨濟 鶴洞의 八色島 번식지가 있다. 가축이 지정된 것은 진도견과 鳥鵝鷄가 있으며 現在 제주도의 枳枋말을 보호조치 하고자 하고 있다.

韓國의 獨特한 동물로는 크낙새, 사향노루 등이 있으며 珍貴한 動物로 산양, 따오기, 두루미, 흑두루미, 반달곰,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재두루미, 황새, 느시, 고니, 흑비둘기, 먹황새, 팔색조, 까막딱다구리, 수리, 장수하늘소, 무태장어, 황쏘가리, 어름치 등이 있다. 열목어의 南限地域은 奉化 小川面 열목어 서식지이다.

鉱物이 天然記念物로 지정된 것은 20점이 있다. 이중에 동굴은 석회동굴과 용암동굴로 대별될 수 있는데 모두 11점의 동굴이 지정되어 있으며 용암동굴은 제주도에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化石이 지정된 것은 칠곡 왜관읍의 나무고사리 化石, 西歸浦의 패류化石, 의령의 雨痕 化石, 함안의 새밭자옥 化石, 상주 운평리의 球狀花崗岩 등이 있다. 특이하게 여름에 얼음이 어는 밀양 南明里의 얼음골 같은 天然記念物도 있다.

天然記念物이 한 구역에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天然保護區域으로 지정된 곳은 紅島 (1,774, 935坪), 雪嶽山(49,520, 178坪), 漢拏山 (30,663, 600坪), 강원도 인제군의 大岩山 大愚山 (9,300, 000坪), 강원도 고성군의 향로봉 乾鳳山(252, 000, 000坪) 등 5개처가 있다.

이들 天然記念物이란 고유한 韓國의 自然文化財로서 가장 嚴格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들이다.

인문적인 文化보다 自然的인 文化가 더욱 원형을 保存하기 어렵다.

이들 天然記念物은 한번 破壞되면 다시 復舊가 불가능한 것들이며 우리민족과 우리국토의 가장 중요한 보배들이다. 이들 天然記物과 비슷한 명승이란 것이 지정되어 있는데 명주 청학동, 거제 해금강, 완도 정도리의 九階燈, 海南 대둔산, 승주 송광사, 선암사 일원, 불영사 계곡, 여천군의 上白島, 下白島 일원 등 7개처가 있다.

순수한 自然만이 아니고 역사적 文化遺蹟과 자연경관이 어울려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적 및 명승이라는 것도 있다. 경주불국사 경내, 경주 계림과 월성지역, 봉화군의 내성 유곡 權沖齋관계 유적, 속리산 법주사 일원, 해인사 일원 등 5개처가 있다.

이들 天然記念物은 國立公園 지정구역 내에 있는 것도 있고 또 動物처럼 이동하는 것도 있다. 이런 경우 國立公園內에서 절대 保存對象이 되어 할 것이다. 公園의 概念은 利用과 保存의 적정한 調和를 요구하게 되지만 天然記念物이나 天然保護區域의 概念은 利用을 배제하면서 까지도 절대 保存을 要求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天然記念物이 國立公園이나 道立公園內에 분포되어 있을 때는 그 공원의 가장 重要한 자원이 되는 것이며 하나 하나의 난개로 存在하는 天然記念物의 綜合的 環境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公園이 된다. 自然은 서로 融合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원환경은 곧 天然記念物의 保存에 절대적 보호역할을 한다. 嚴密히 말하면 난개의 天然記念物이 홀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 속의 일부로 存在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은 天然記念物을 가꾸는 어머니가 되고 天然記念物 自体는 거대한 공원 환경 속에 生存하는 자식이 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기에 天然記念物과 공원은 서로 유기체적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3. 天然記念物 管理

天然記念物은 生物이 많기 때문에 生命이 있는 대상이란 부단히 變化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관리가 必要하다. 老巨樹는 수명이 거의 다한 경우가 많고 병충해 관리나 生態學的 점검이 주기적으로 있어야 한다. 文化財管理局에서는 이들 老巨樹에 대하여 腐敗한 木部는 외과 수술을 하고 있다. 또 속리산의 正二品 소나무같은 경우는 솔잎혹파리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소나무 전체에 망을 씌워서 外部로부터 솔잎혹파리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런 시설을 할 경우에 나무하나를 관리하는데 막대한 經費가 所要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保護措置를 강구해야 한다. 어쩌면 속리산 國立公園의 얼굴이 正二品松일 수도 있다.

1984년에는 雪嶽山 天然保護區域의 종합적 학술조사를 실시한다. 이 調査는 植物, 動物, 곤충 등의 生態的 주기조사인 동시에 鈳物이나 景觀에 대한 變化를 調査한다.

1966年 天然保護區域을 지정할 당시와 現在의 생태나 경관 수질등의 變化를 과학적으로 調査하여 保存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서이다.

지정된 天然記念物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러한 주기 學術調査를 실시하여 正確한 科學的 檢討를 거쳐 對策을 강구하는 동시에 冊子로 발간하여 기록으로 남길 것이다.

이제 國立公園을 管理하는 여러분과 이 분야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서 國立公園內의 天然記念物 管理에 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한다.

가. 野生 鳥類의 天然記念物 保護

野生鳥類의 생태를 숙지하고 그 분포상태와 이동사항 및 서식지를 카드로 作成하여 증식 對策을 강구한다. 이러한 鳥類의 서식에 必要한 樹林이나 環境을 보호하여야 한다.

야생 鳥類가 먹이를 구하는 해안이나 강가에는 공해나 소음이 없게하고 먹이를 育成하거나 인공으로 살포한다.

특히 새끼를 까는 時期에는 사람의 接近을 防止하고 총포의 사용을 嚴禁한다.

滅種되어 가는 稀貴種의 鳥類는 인공증식도가 능하면 해야 한다.

나. 植物 天然記念物の 保護

산불을 방지하고 거름을 주거나 殺蟲 作業을 실시하며 老巨樹에 대해서는 수목의 병리학적 점검을 실시하여 樹勢保存을 하여야 한다.

湮滅 위기의 稀貴種은 자생지에 인공으로 증식시키는 方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인위적 피해를 막아야 하며 절취해 가는 것 같은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다. 鉱物 天然記念物 保護

化石이나 稀貴한 岩石을 절취해 가는 것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利用施設의 抑制가 必要하다.

라. 洞窟 天然記念物の 保護

洞窟 内部의 生態를 유지하도록 하고 開放과 保存의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 석순의 보호와 박쥐, 魚類, 植物, 昆蟲 등의 保護도 必要하다.

洞窟속에 지나친 電氣施設이나 관람인원이 많으면 자연이 破壞되어 죽은 洞窟이 되고만다.

利用과 保存의 적정을 이루도록 전문적인 주기적 학술조사를 하여 科學的으로 管理되어야 한다.

마. 魚類 天然記念物の 保護

魚類가 서식하는 강물이나 계류의 汚染을 방지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雪嶽山 계류에 열목어가 가득히 살고 있다면 얼마나 國立公園의 가치를 높일 것인가. 必要한 경우에 人工增殖方法도 강구해 볼 必要가 있다.

바. 稀貴動物의 天然記念物 保護

우리는 88올림픽에 호랑이를 마스코트로 정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韓國의 國立公園 內에 호랑이는 한마리도 살고 있지 않다고 報告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생으로 인공증식할 必要도 있다고 생각한다.

雪岳山의 반달곰이 밀업꾼의 총에 맞아 죽은 일이 있다. 특히 國立公園 內에서 稀貴한 동물이 밀업꾼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실로 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雪嶽山의 산양이나 지리산 등지의 사향노루 등은 증식되도록 努力해야 한다. 우선 이들이 사는 생태 調査를 철저히 하고 이에 따른 管理方法이 강구되어야 한다. 國立公園內에서는 밀업꾼의 단속이 철저히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 天然保護區域의 保護

天然保護區域은 國立公園內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절대보전지역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매점의 設置, 케이블카의 설치, 스키장의 설치 같은 施設은 절대 嚴禁되어야 할 것이다.

天然保護區域은 신비한 자연 그대로 우리 國土의 原始의 모습을 보여주는 地區로 管理되어 觀覽客의 적정선을 유지하고 산불방지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 自然保護의 啓蒙과 教育

管理하는 몇 사람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國立公園이나 自然記念物 保護目的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부단히 啓蒙과 國立公園마다 自然保護 및 研究를 위한 教育館이 設置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自然을 利用하는 올바른 方法을 教育하고 自然을 진실로 바로 즐길 수 있는 心性의 함양을 이룩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급진적으로 産業化 하는 과정에서 생긴 國民의 병든 정신을 치료하는 效果도 얻을수 있을 것이다.